

무안공항, 전국 13개 지방공항 중 KTX 진입 유일 공항

8년 돌고 돌아 호남선 KTX 2단계 착공

수도권·충청권 승객 흡수 기대

나주 고막원~목포 임성 44km

경전선·남해안철도 전철화도 시급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 착공은 수도 서울에서 호남선의 종착역인 목포까지 고속철도 노선이 깔린다는 것과 국토 서남권 관련 공항인 무안 국제공항을 경유한다는 것이 그 의미가 크다. 2025년 또는 이보다 2년 앞당겨 2023년 호남선 KTX가 완전 개통하게 되면 무안국제공항은 KTX가 진입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또 서울과 목포를 한 번에 잇는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은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2010년 준공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에 대해 늦었지만 국토 서부간선에 해당하는 호남선 KTX를 완성한다는 것에도 그 의미가 있다. 지역 발전 견인차 구실을 하는 호남선 KTX의 2단계 사업 착공은 민선 5·6·7기 전남도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무안공항, KTX 진입하는 국내 유일 지방공항

'비상' 호남선 KTX는 단계적 추진 계획에 따라 전체 구간 중 오송~광주 송정(182km·1단계) 구간이 지난 2015년 개통됐다. 앞서 2004년 개통된 경부선 1단계(서울-동대구)에 비해 11년이 늦어지면서 대표적인 호남 차별로 간주됐다. 이마저도 광주 송정 이남은 노선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면서 '반쪽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썼다.

이는 나주역 경유와 무안공항 경유 등을 놓고 지역 내 이견과 갈등이 촉발된 것도 하나의 이유였지만, 이를 빌미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2단계 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애초 개통 예정(2017년)보다 8년이 늦어지게 됐다.

개통 시기가 늦어졌지만 얻은 것은 결코 작지 않다. 수도권 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가운데 KTX가 진입하는 공항은 무안공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김해, 청주 등 13개 지방공항 중 KTX와 직접 연결되는 공항은 없다. KTX 진입으로 무안공항은 2007년 11월 개항 이래 최대의 호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안개·폭설 등 기상 악화로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경우 KTX를 거쳐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흡수는 물론 업그레이드된 접근성을 바탕으로 각종 프로모션을 통한 충청·수도권 여객 유인도 가능해진다. 무안공항 이용객은 지난 2019년 90만명을 기록, 여객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뒀지만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여느 공항처럼 침체기에 있다.

◇영호남 철도망 격차 해소 아직 '먼 길'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이 연내 착공되지만, 철도망에서의 영호남 격차는 여전히 크다. 호남 차별 사례로 지목되는 대표 사례는 경전선과 남해안 철도이다.

경남 밀양 삼랑진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경전선(연장 277.7km)의 경우 호남 차별의 현재 진행형이다. 일본강점기 개통된 경전선은 경남을 지나 전남 구간으로 진입하면 갑자기 느림보 철길로 변한다. 삼랑진-순천 구간은 상·하행선으로 분리된 복선, 전철 구간이다. 하지만 순천-광주 122.2km 구간은 단선 비전철 구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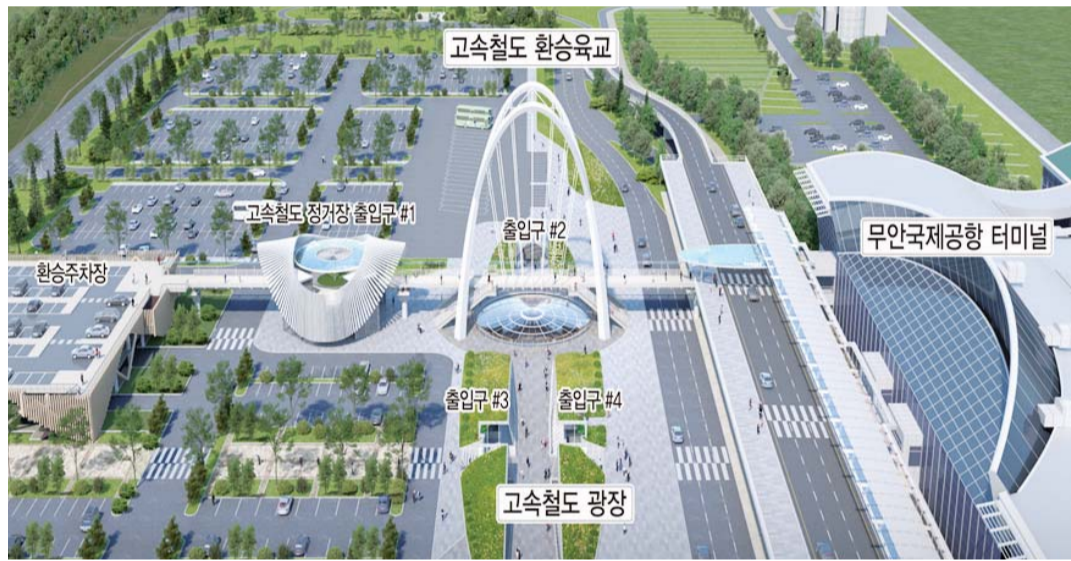
민선 7기 들어 지난 2019년 말 경전선 전남 구간 전철화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5년까지 전철화 공사가 진행된다. 전철화 사업과 별개로 경전선 전남 구간은 단선 철로를 복선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남해안철도를 구성하는 목포 임성-보성 구간 철도 신설사업도 호남 차별을 드러낸다. 순천·광양·여수 등 전남 동부권은 물론 보성에서 철도를 이용해 목포를 가기 위해선 화순-광주-무안을 거쳐야 한다. 순천에서 해남을 거쳐 목포로 가는 남해안권 철도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경남과 큰 격차를 보인다. 경남권의 경우 광양-진주 구간과 진주-마산 구간이 이미 복선 전철화됐다. 마산-부산 구간은 복선 전철화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2년 개통 예정이다. 반면 전남 구간은 목포 임성-보성 구간에 이체서야 철로가 생겨나고 있다. 경남권과 달리 단선으로 놓이며, 애초 디젤기관차가 다니는 비전철 방식으로 추진됐다다가 가까스로 전기기관차가 다닐 수 있는 전철화 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었다. 이 때문에 애초 2022년 개통 예정이던 목포-보성 구간은 개통이 1년 늦춰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 사업의 사업성·타당성만 따지다 보니 호남은 계속 영남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산업화에서 소외된 전남, 나아가 호남을 배려하는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총리 "윤석열 총장, 국민 섬기는 결단해야"

"추 장관 검찰개혁 과제 감당 평가"

"의사 국시 조만간 조치 취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끝에 '2개월 정적' 징계가 확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민을 잘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직자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엄중히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검찰개혁이 국민에게 중요한 과제로 돼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대부분의 개혁은 완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결단'의 의미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윤 총장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데 이어 공수처 출범 등의 과제를 사실상 마치고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만큼 윤 총장도 자신에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앞서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에서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

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힘든 과제를 감당할 것을 평가한다"며 "개혁을 완결하고 그런 결단(사의 표명)을 한 것을 평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을 묻는 말에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라는 물음에 정 총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의대생 본과 4년 학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의사 국가고시를 집단으로 거부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이후 9월 4일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대상자 3천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시험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40%선 회복... 30·40대 긍정평가 우위

한국갤럽 조사... 2%p 올라

민주당 34%·국민의힘 2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하며 40%선을 회복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가 '긍정' 답변했다. 이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전주(38%)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답변은 52%였다. 역시 역대 최고치였던 전주

(54%)보다 2%포인트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긍정 46%·부정 45%)와 40대(긍정 50%·부정 43%)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위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긍정 50%·부정 43%)과 광주·전라(긍정 58%·부정 34%)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역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0%)이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12%, '코로나19 대처 미흡'이 11%, '법무부·검찰 갈등'이 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7%로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가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 개혁'(11%), '전반적으로

잘한다'(7%)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3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변동 없이 21%를 유지했다. 정의당은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갤럽이 향후 한국의 경기 전망을 묻은 결과 21%는 '좋아질 것', 54%는 '나빠질 것', '22%는 '비슷할 것'이라고 각각 답했다.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14%가 '좋아질 것', 39%가 '나빠질 것', 44%는 '비슷할 것'이라고 각각 전망했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마치 링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차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